

2018년도 표어
『열매를 맺는 교회』
(행 2:47)

NEW
순복음Life
제28호

발행일 : 2018 .8 .5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언제나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도 어딘가 어딘가 없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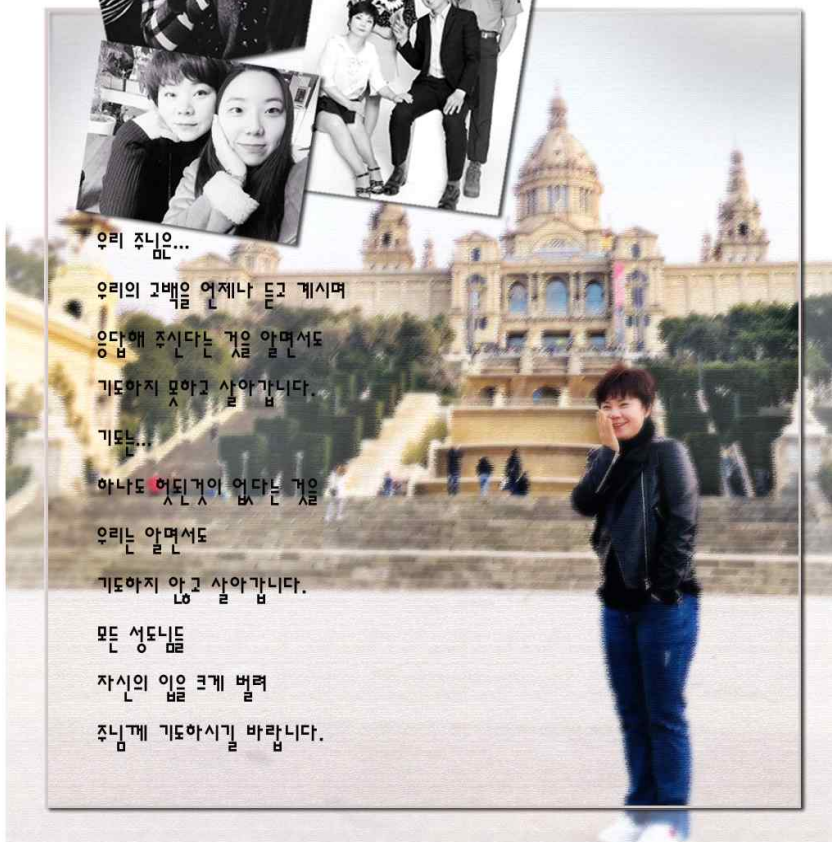
우리는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님들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권철님의 간증 부탁을 받고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써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고 또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워낙에 글 솜씨가 없기에 선뜻 가닥 잡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민과 염려가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이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먼저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인도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 둘 자신의 짝을 찾아서 주님의 은혜로 결혼식을 올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니 저의 지난 철었던 시절이 떠올립니다. 고등학교시절 언니는 수시로 저에게 말하기를 “**너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라**” 고 말하곤 했지요. 하지만 믿음이 그다지 없었던 시절이라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기도해야 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던 듯 하네요~ 그냥 그렇게 시간만 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고등학교 시절을 마치고 광주에 사는 언니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의 삶을 잘 살지 않는 동생을 곁에 둔 언니는 참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 원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언니를 통하여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믿음도 자라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언니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라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생각 날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했던 기도 제목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저에 머릿속에 항상 맴도는 생각이랄까요.

엄마가 언니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커서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내가 키가 작으니 2세를 생각해서 **키가 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성실하면서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심일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26살에 하겠다**는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언니와 지내다가 엄마가 몸이 편찮으셔서 이곳 당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의 생활(부모님의 농사일)을 시작하다보니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믿음도 점차 식어갔습니다.

또한 마음도 몸도 지치더라구요.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서 당진 시내에 방을 얻어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그 즈음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지금의 김집사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제 나이는 기도대로 26살이었습니다.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지내다보니 다시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교회를 알아보던 어느 날 지금의 우리 한승권 목사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권면과 복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당진순복음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으며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 김집사를 만나고 한 가정을 이룬 것이 제가 입으로 고백했던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성길 성전을 찾을 때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나의 교회, 우리들의 교회를 주님께서 예비 해 두셨다가 제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모저모로 은혜 주심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언제나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씩 영혼의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요. 기도는 단 하나라도 헛된 것이 없음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 없이 사는 세상 속 노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상속자 신분 된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실하며 키가 크고 십일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남편을 만났고 그 사이에 자녀 연훈이와 성령이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가족 모두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께 쓰임 받고 있으니 더 없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24년 만에 최고로 더운 날을 갱신하고 있는 이 8월에도 영혼을 시원케하며 주님께 합당한 가정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도 돌아가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시는
선행 형제기의
집사님께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1. 집사님은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2. 믿고 계신 하나님을 열자 내외로 말씀해주세요.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3. 큰아들 민성이가 군대에 있어요, 언제 제일 생각나요?

맛있는 것 먹을 때요.

4. 남편 되시는 김광일 선생님은 어떤 남편, 어떤 아빠신가요?

경상도 남자는 아닌데 표현을 안 해요. 자상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남편자리에 있음을 감사해요. 아이들에게는 늘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무서운 아빠이기도 하지요.

5. 부부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갈등이 생길 때는 말을 아껴요. 그리고 인내합니다. 때로는 기다릴 때도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껴가더라고요.

6. 아이들을 보며 다시한번 돌아보게 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나 언어를 사용할 때 아이들의 입술 속에서도 엄마의 신앙의 삶이 나오더라고요.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7. 딸은 엄마를 닮는다는데 다희가 닮았으면 하는 부분과 닮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 말씀해주세요.

다희가 저를 닮아 찬양 부르기를 좋아해요. 저도 찬양 부르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다희가 찬양 사역자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또한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도 저를 닮았어요. 그런데 다희는 저처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점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8. 셋별유치부로 오행시 부탁드립니다.

셋 ~ 셋별 같은 두 눈으로

별 ~ 별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유 ~ 유치부 친구들아

치 ~ 치아가 반짝이는 미소를 가지고

부 ~ 부요한 주님의 사랑으로 쑥쑥 성장가기를 바래~

9.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집사님의 모습은 많은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내가 취했던 행동 중 가장 최근의 일을 말씀해주세요.

봉사입니다. 저는 몸이 아프면 더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제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느껴요. 기쁨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제 흔적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10.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모닝차를 선물 받았을 때요. 기능시험 붙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차와 보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운전면허증보다 먼저 나오게 처리해 주더라고요. 감동이었습니다.

11. 요즘 머릿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민성이의 제대 후 직장 생활에 대한 걱정이 있네요. 이 또한 주님께 맡기면서 예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2. 주일학교 교사라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어떤 아이 였고 왜 기억에 남을까요?

음..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어릴 적 정석이가 생각이 나네요. 정석이는 눈물이 많은 아이였는데, 저를 잘 따라주었어요. 제가 해주었던 행동들도 생각난다고 제게 이야기 해 준 것도 생각나네요. 정석이는 이런 제 마음을 알까요?

13. 7월의 말씀은 ‘영혼을 시원케 하라’입니다. 집사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세요?

제 영혼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는 제 마음에 어두운 것들을 밝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쁨을 가지려고 해요. 하루에 3장씩 꼭 성경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도 나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곳에 시원함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4. 1인 1사역을 하게 된다면 교사와 구역장중 무엇을 하시겠어요?

아님 따로 하시고 싶은 주님의 일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교사입니다. 고백했어요. 허락해 주신다면 50까지는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4년 남았네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5. 집사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말씀은 성경 어디 말씀인가요?

시편 91편 14-16절 말씀입니다. 등록 심방 때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껏 의지하며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16. 누구든 슬럼프가 와요. 가정의 엄마나 주부로서도, 신앙의 성도로서도 그럴지요. 집사님은 슬럼프가 있었나요?

그럼요 저도 있었지요. 처음에는 슬럼프로부터 저를 차단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찬양의 가사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슬럼프를 극복하고, 안 걸리려고 무던히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17.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집사님은 언제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요?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방황하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매순간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며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의 기도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18.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쑥쑥 자라고 있어요. 세 아이에 대한 집사님의 비전을 듣고 싶어요.

세상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며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으며 쓰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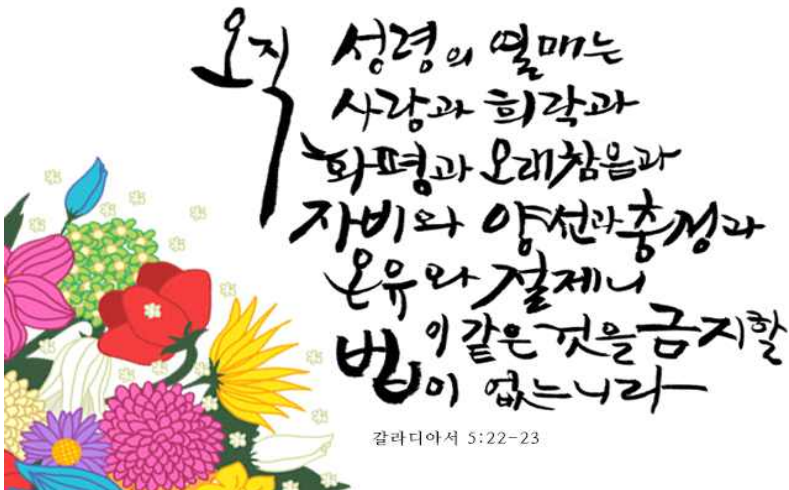
19.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목숨을 한 달 연장 받았다면 그 한 달에 무엇을 하시겠어요?

한 달 말고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더 살게 해 주세요~~^^

저의 남은 삶을 기쁨으로 정리해 가며 전도지를 들고 나가겠습니다.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20. 열매를 거두리라 하셨는데 올해 반드시 거두고 싶은 열매는 무엇인가요?

남편의 구원과 남편에 진행되어지는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제 그 일들이 막힘없이 진행되어져 물질이 풍성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춤추는 구역



2018년을 시작하며 ‘열매’라는 이름의 구역으로
뭉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벌써 반년을 지냈습
니다. 이제 땅은 태양을 통해 뜨겁게 달구어지고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삼키고 태울 것만 같은 더 뜨거운 햇살로 열기를 퍼붓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필 이렇게 뜨거워지는 7월에 우리 열매 구역은 중식 당번
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 감당할지 사뭇 염려되어 구역장은 구역식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염려는 모두 기우였습니다. 중식 준비에서부
터 성도님들의 식사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감사와 웃음의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
니다.

더운 날씨 탓에 혹시 음식이 상할까봐 토요일에는 중식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매주 주일 아침 일찍 교회 주방에 모여 다 같이 헌신했습니다.

김남현 집사님께서 물심양면으로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 해 오시면 현덕규 권사
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조금 더 장 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찰떡궁합을
자랑하시며 맛있는 음식으로 탄생시키셨습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다정하시고
호흡이 척척 맞는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누가 보면 사귀는 줄 -.:: 김진숙
집사님과 구역장은 다듬고 씻고 썰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통한 찬양이 흥
열흥열 흘러나왔고 급기야 우리 현덕규 권사님의 걸음걸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
십니다. 이렇게 하는 중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며 성도들의 중식
준비가 너무 즐거우시답니다. 뿐만 아니라 김남현 집사님의 걸음걸이도 예사롭
지 않더라구요.. 뒤질세라 덩실덩실 이십니다. 역시 울동대회 1등 구역이라 다릅
니다. 중식 준비 내내 호호깔깔 웃음의 소리도 끊이질 않았고 더위가 민망해 도
망갈 정도로 덩실덩실 즐거웁게 춤추며 헌신하십니다. 일손이 부족하지 않아 새
로운 생명을 잉태중인 김소현 권찬님의 손은 당연히 설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줄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우리 김진숙 집사님은 중식 내내
우리 모두의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커피를 책임져 주셔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한예지 권찬님은 멀리서 마음으로만 협력하시며 모두 마치면 다 같이 모
여 차라도 한 잔 하라시며 제 폰에 쿠폰 5장을 날려 주셨습니다. 6명이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법도 한데 그 누구 그런 심령 없었음에 감
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춤추는 우리 열매 구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지요?? 이런 식구들이 있어 구역장은 힘이 나
고 즐겁습니다.

구역장 김미진집사

웃으십시오!



어느 해 보다도 2018년은 우리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심히 운동을 했거든요. 4월에 족구대회, 5월에는 탁구대회, 7월에는 베드민턴대회로 다들 분주하셨지요? 운동이란게 스스로 잘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대회라는 동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또 성도들은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각자가 속한 곳에서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참 분주했었던, 그리고 마냥 즐거웠었던 일들이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스포츠위원회와 행사위원회의 수고와 헌신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스포츠 문외한이 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길라잡이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이 또 기대됩니다.

편지

빈희야~

우리 6명 친구 중에 가장 먼저 취업도 하고

또 가장 먼저 결혼도 하고

가장 먼저 ...

엄마가 되는 너의 모습이 누구보다 당당하고 의젓해 보인다.

난 취업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던 세상에 넘지 못할 산들 때문에 힘들어 했지만

너 그 속에서도 잘 적응하며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네가 대단스럽고 자랑스러워^^

이제 결혼을 하고 새로운 시작인데 빈희 네 앞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친구로서 주님 앞에 기도할게~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네 편 이 것처럼 나도 네 편이 되어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너를 위로 해 주는 친구가 될거야.

또 네가 기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네가 기뻐 할 때 가장 많이 기뻐 해 주는 친구가 되어줄게.

행복하게...

잘 살아 친구야~~

결혼 축하해

혜진이가.



새가족 소개

배명국 성도



올해 71세 되시는 배명국 성도님은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시고 사시던 중 몸속 시한폭탄이라 불리우는 대동맥류(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하셨습니다.

위낙에 큰 수술이었기에 1년 6개월만인 지난 5월에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퇴원하시고 아내 되시는 김종숙 권사님의 권유가 마음을 교회로 향하게 했고 또 힘들었던 지난날에 병상 생활이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예전 젊으셨을 때 장로교회에 잠시 다니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는 시골교회라 성가대가 없이 목사님 설교와 찬송가 몇 장 부르는 식의 예배였다네요. 그때의 생각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그런지 지금에 우리 당진순복음교회는 조금 어색하시고 적응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듯 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좀 더 살갑게 다가서고 챙겨드려서 어색하시지 않도록 도와 드려야겠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여쭙니 아직 계획까지는 없으시지만 신앙의 줄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계시겠다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말씀으로 마무리 하셨습니다.

참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기도와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와 한 식구가 되신 배명국 성도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천국 가시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의 기도드립니다.

*** 결심과 실천에 대한 자아성찰 ***

장미라집사 (4번) - 재도전

1. 100% 2. 75% 3. 50% 4. 40% 5. 25% 6. 10%

*** 이달의 결심과 실천 ***

금영미 집사

저는 매일 하루 한 장이라도 성경 쓰기와 가정예배를 결심하겠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화성이예요. 그러다보니 주말부부로 살고 있지요.

주말에 아이들 아빠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편은 얼마 전부터 화성으로 이사를 가자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교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조금 힘들더라도 당진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성경을 쓰며, 그리고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장막을 이주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기도에 응답 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감사 릴레이

박영만 집사님

긴 세월을 세상 속에서만 바쁘게 살아가던 사람인 저를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와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게 주어진 남은 삶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이며 고넬료처럼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더욱 거듭난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다음 릴레이 주자 : 이영길 장로님

2018 여름성경학교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위대한 건축가 -느헤미야 프로젝트-



이 시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미래 지도자로 우리 순복음 어린이들이 삶 전 영역에서
 지금부터 리더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

신나고 즐거운 여름성경학교

샬별 유지부의
성경학교 이야기...

와~ 기쁨이 넘쳐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니엘 유초등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7월입니다.

7월의 주제는 여름 성경학교인데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유치부 20명 유초등부 40명 총 60명의 친구들의 출석을 놓고 기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유치부와 유초등부의 부흥을 놓고 계속 기도 해 주세요.

첫째 주 프로그램은 모두 아시는 촌극 대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본을 외우고 준비하며 저녁에 있을 촌극 대회를 준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한 연극 무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둘째 주 프로그램은 초대장 만들기를 했습니다. 곧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초대장인데요. 무당벌레 모양의 작고 귀여운 초대장입니다. 색도 칠하고 날개도 만들어 주고 무당벌레 눈도 달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초대장에 친구에게 초대장의 메시지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주 프로그램은 단짝 친구 초대하기를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온 친구도 있고 함께 오지 못한 친구들은 친구가 오지 못한 서운함을 이야기 하며 다음에는 다른 친구를 전도 하겠다는 우리 친구들을 보며 열심히 전도 하려고 노력했을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었습니다.

넷째 주 프로그램은 말씀 안 들려도 모두 아시고 계신 대망의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위대한 건축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듯 우리의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고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는 프로그램입니다. 공과도 배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무너진 것을 세우고 주님 안에서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우리교회 모든 아이들이 느헤미야처럼 주님 안에서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우고 더욱 건강한 영성을 쌓아가길 함께 기도 해 주세요.

성경 숨은그림찾기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로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5절)
 [숨은그림: 안경, 요구르트, 포깅, 럭비공, 井(우물정)]

*성령이 임하시면...

- essay.8 -



저 약아빠지 때문에
타인의 사선을 약하게
오해의 이 순간
크리스천이란 사실을
부끄럽다고 느끼고 있진 않은가?!

나는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신복음 바자회









*** 어느 스승과 제자 ***

통슨이라는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있었다.

개학 날 담임을 맡은 5학년 반 아이들 앞에 선 그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이들을 둘러보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첫 줄에 구부정하니 앉아 있는 작은 남자 아이 테디가 있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했다. 통슨 선생은 그 전부터 테디를 지켜보며 테디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웃도 단정치 못하며, 잘 씻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때로는 테디를 보면 기분이 불쾌할 때도 있었다. 끝내는 테디가 낸 시험지에 큰 X표시를 하고 위에 커다란 F자를 써 넣는 것이 즐겁기까지 한 지경에 이르렀다. 통슨 선생이 있던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난 생활기록부를 다 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테디 것을 마지막으로 미뤄두었다. 그러다 테디의 생활기록부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테디의 1학년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2학년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테디의 4학년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선생은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고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어느 날, 반 아이들이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는데, 테디의 선물만 식료품 봉투의 두꺼운 갈색종이로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선생은 애써 다른 선물을 제쳐두고 테디의 선물부터 포장을 뜯었다.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사분의 일만 차 있는 향수병이 나오자, 아이들 몇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녀가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며 감탄하고,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었다.

테디 스토다드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에게서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그녀는 아이들이 돌아간 후 한참을 울었다. 바로 그날 그녀는 읽기, 쓰기, 국어, 산수 가르치기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톰슨 선생은 테디를 특별히 대했다. 테디에게 공부를 가르쳐줄 때면 테디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했다. 그녀가 격려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반응했다. 그 해 말이 되자 테디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여워하는 학생이 되었다.

1년 후에 그녀는 교무실 문 아래에서 테디가 쓴 쪽지를 발견 했다. 거기에는 그녀가 테디의 “평생 최고의 교사”였다고 쓰여 있었다.

6년이 흘러 그녀는 테디에게서 또 쪽지를 받았다. 고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다고 쓰여 있었고, 아직도 평생 최고의 선생님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쓰여 있었다. 4년이 더 흘러 또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이번에는 대학졸업 후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었다.

이번에도 그녀가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 쓰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름이 조금 더 길었다. 편지에는 ‘Dr. 테디 스토다드 박사’라고 사인되어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해 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다. 테디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톰슨 선생님에게 신랑의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앉아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녀는 기꺼이 좋다고 화답했다. 그런 다음 어찌 되었을까? 그녀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몇 개 빠진 그 팔찌를 차고,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뿌렸었다는 그 향수를 뿌렸다. 이들이 서로 포옹하고 난 뒤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된 테디 스토다드는 톰슨 선생에게 컷속말로 속삭였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톰슨 선생은 또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테디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널 만나기전 까지는 가르치는 법을 전혀 몰랐거든.”

누가 그러는데 / 인생은말야

죽음만큼 사랑했던 사람도 모른 채 지나가게 될 날이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웠던 친구가 전화 한통 없은만큼 멀어지는
날이오고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다시 만나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의도적으로 멀리하지 않아도
스치고 떠날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아동바둥 매달리지 않아도 내 옆에 남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준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 해 주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튼게 보내 필요는 없다
비바람 불어 흙탕물을 뒤집어엿다고 꽃이 아니더냐
다음에 내릴 비가 씻어준다
실수들은 누구나 하는거다 아기가 걸어나가기까지
3000번을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법을 배운다
나도 3000번을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 사람인데
별것도 아닌 일에 좌절하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버긴다 해도
결국 하늘 아래에 숨 쉬는 건 마찬가지인 것을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이 하찮은 생물이 뿐인 것을
아무리 키가 크다 해도 하찮은 나무보다도 크지 않으며
아무리 달리기를 잘 한다 해도 하찮은 동물보다도 느리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여 질투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떠온글

유다(Judas)

뜻: 찬송

[1] 야곱의 4째 아들(창29:35, 마1:2).

(1) 레아가 B.C 1755년에 하란에서 낳았다.

여러 형제가 어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했다(창37:26-27).

야곱의 넷째아들-- 하나님의 섭리 불순종 고통과 부끄러움 당해 유다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넷째 아들이므로 그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이다. 그는 열두 형제중 지도력이 탁월하여 그의 후손 중에서 치리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의 축복을 받게 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것을 찢고 올라 갔도다.

그의 옆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 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49:9-10).

그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처럼 통간과 살인의 죄는 범치 아니 했으나 가나안의 아둘람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한 것이 실수였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심에 있었더라](창38:2-5)

아브라함에서 유다, 유다에서 다윗, 다윗에서 그리스도에게로 흐르는 혈통이 순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선 그 혈맥을 끊으시고 새롭게 이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유다를 통해 다시 한번 찾아 볼수 있다. 유다와 가나안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엘이 여호와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므로 죽임을 당했으며 그의 동생 오난도 결국 죽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가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유다와 그의 자부 다 말에게서 베레스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처럼 유다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인위적 계획이 하나님 섭리의 흐름을 막는 경우 하나님께선 그 섭리의 물꼬를 트시기 위하여 제방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선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그 섭리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만일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자식의 죽음과 자부의 몸에서 후사를 얻는 고통과 수치는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시사용어 Briefing

1. IDU(국제민주연합) - International Democratic Union

IDU란 자유주의적 이념과 민주주의적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세계 정당 단체다. 1983년, 좌익계 정당기구인 SI(사회주의 인터네셔널)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정당단체로 전체주의를 배척하고 자유주의적 이념, 민주주의적 사회의 실현을 목표하는 단체이다. 본부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으며 2년마다 당수 회의가 열린다.

2. IPU(국제의원연맹) - Inter-Parliamentary

IPU란 국제 평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 의회 기구이다.

1889년, 파리에서 국제 평화 및 협력의 촉진, 의회제도 정착, 민주제도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국제재판 사상의 보급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평화가 주된 목적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4년에 가맹하였다.

3.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

양해각서란 당사국 간의 외교교섭으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정식 계약 체결을 하기전에 문서화 한 것이다.

본 계약서나 정식 계약을 체결할 때 양해각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식적으로는 법률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국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의 경우 법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본 조약의 후속 조치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국가 간의 외교교섭 결과에 따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4. MOA(합의각서) - Memorandum Of Agree

합의각서란 조약에 관한 국제 협약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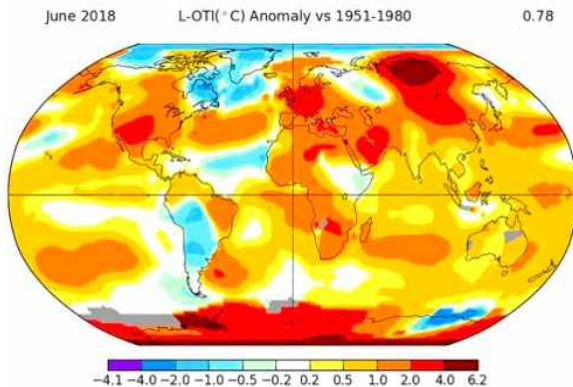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여 계약 한 것이다. 당사국 간에 합의 사항을 문서화 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이에 대해 세부 조항이나 구체적인 이행 사항 등을 구체화 시켜서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불볕더위

장마 전선이 물러간 후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 지역별로 온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30도를 훌쩍 웃도는 뜨거운 나날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어린이집의 차량에서 아이를 내리지 않고 차량에 방치 해 두었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노약자 분들도 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집에서 사망하는 일등 더위로 인한 사건사고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올해가 24년만에 최악의 더위라고 메스컴은 연일 보도하고 있다. 이런 더위를 이겨 내기위해 사람들은 계속해서 냉방기기를 사용하고 냉방기기는 또다시 더위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로 인해 점점 우리가 사는 지구가 오염되면서 오존층이 파괴되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점점 좋지 않은 악조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하심에 맡기고 기도하며 작금에 이런 환경에 적응하고 또 다른 하나님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불볕더위 속에서도 때때로 구름과 바람을 주시고 시원한 물도 끊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8년의 지구 표면 온도를 색으로 표현한 그림. 붉을수록 열선이 강함을 뜻한다. / NASA

여름철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이것만은 꼭 지켜세요!

물에 들어갈 때 준비사항

- 준비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물로 들어가 수온에 적응 시켜야 합니다.
- 초보자는 수심이 얕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 ※ 물놀이 미끄럼틀에서 내린 후 무릎 정도의 얇은 물인데도 허우적대며 물을 먹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으므로 절대 안전에 유의합니다.
- 튜브나 통나무 같은 의지물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 의지할 것을 놓치거나 부유구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수영 중에 “살려 달라”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 ※ 주위의 사람들이 장난으로 오인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합니다.
 - ※ 물에서 평영 50m는 육상에서 250m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피로를 느낍니다.
- 음주 후 수영은 사고 위험이 크므로 금지 또는 자제해야 합니다.
- 배, 보트 등을 탈 때나 물놀이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 먼저 물에 들어갈 때 준비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영하기에 가장 알맞은 수온은 25~26℃ 정도라고 하네요.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1.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2.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갑니다.
3.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합니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합니다.
4.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합니다.
5.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갑니다.
6.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7.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합니다.
8.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9.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10.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바울남선교회 헌신예배 / 8월 5일 오후 6시
2. 하계연합수련회 / 8월 6일~8일
3. 주일학교 헌신예배 / 8월 26일
4. 소방설비공사 / 6월 12일~8월 3일

◎ 공지사항

1. 8월 생활실천표어 /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라
2. 8월 신앙서적 / 성경대로 세상살기 '하형록' 저
3. 교회방학 / 7월 23일~8월 18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